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사도행전 19:1-10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2“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4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5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6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7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8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9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10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성령의 선물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으로, 성경 암송의 양으로, 혹은 선교를 얼마나 자주 가는 것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혹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넘쳐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고 계신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라는 질문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진행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뒤에서부터 거꾸로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 역으로 구조를 분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이 본문의 후반부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8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고 믿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나타나는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거나 억지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분별력을 구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초청의 형태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이 목회자, 친구, 동료와 같은

우리 삶 속의 사람들을 통해 주어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대부분 그분을 거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길은 완고함과 불신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19:8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 구원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이 선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이 선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 선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9: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우리는 지난주에 위대한 설교자 아폴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는 매우 은사가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회개와 죄에서 돌이키는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따로 데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시며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알게 될 때,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8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이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먼저 다른 방향을 말씀하십니다—“내가 떠난 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떠나고 다시 올 때까지 그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아직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바울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서로를 치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러한 열매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을 사모하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 자체는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진짜 증거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일, 관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그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선물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방언, 예언, 치유—이러한 것들도 성령의 역사와 열매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큰 열매는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계획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타락 이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지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이르러도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예배하도록 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완고함 속에서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신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끄시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은사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어떤 능력처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베드로가 행하는 능력을 돈으로 사려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은사들은 어떤 재능이나 쇼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3:1-3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방언, 예언 등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더 정확하고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마음과 뜻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둡니다. 한 친구는 1965년 머스탱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두 대의 차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냅니다. 심지어 에어컨이 있는 곳에 보관하고 직접 운전하지도 않으면서 휴대폰 영상으로 더 자주 봅니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같이 하고 싶어하며 정성과 시간을 들여 소중히 대합니다.)

부모들도 말합니다: “나는 내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학비가 가장 중요한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가 모든 순위의 우선이 되며 자녀에게 들어가는 지출은 전혀 아깝지 않고 우선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몇번째 순위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직장에서 화가 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다른 것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삶의 모든 영역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3:13**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믿음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표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